

26. 크레인 운전원에게 발생한 전립선 암

성별	남성	나이	만 48세	직종	운전원	직업관련성	높음
----	----	----	-------	----	-----	-------	----

1 개요

근로자 ○○○은 1996년부터 7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천장 크레인 운전업무를 수행하였다. 근로자는 2021년 11월 7일에 집에서 쉬던 중 우연히 좌측 목의 덩이를 발견하여, 당일 □병원에서 시행한 목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커진 림프절이 여러 개 발견되어, 2021년 11월 22일에 □병원에서 전립선 침 생검을 하였고,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adenocarcinoma (Gleason score: 5+5=10)가 확인되었다. 근로자는 천장 크레인 운전업무를 하는 동안 생리현상 해결이 어려웠고, 디젤연소물질, 석면, 유기용제 등에 노출되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여 2022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요양신청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은 이에 대한 업무관련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역학조사를 의뢰하였다.

2 작업환경

근로자는 1996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가공부에서 마그네트 천장 크레인(15톤, 25톤) 운전업무를 하였다. 강재적치장이 해안에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캐빈 문을 열고 작업하는 과정에서 가까운 안벽에 정박하고 있는 철판운반선, 드릴쉽 등의 선박과 트랜스포터, 지게차, 트레일러 등 각종 철판 운송차량에서 배출되는 디젤연소물질에 항상 노출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근로자 작업장 바로 옆에는 프라이머 작업 등이 이루어지는 전처리 공장 3개 동이 있고 RTO(Regenerative Thermal Oxidizer, 축열식소각설비)로 배출가스를 처리하고 있었는데, 프라이머 등 유기용제 냄새와 전처리 공장 굴뚝의 시커먼 연기들이 근로자 쪽으로 날아온다고 진술하였다. 주 1회, 회당 30~40분 정도 크레인 이물질 제거작업을 하였고, 이때 베어링에 흘러내린 그리스 등을 닦아내기 위해 유화제나 WD-40, 신나 성분을 걸레에 묻혀 닦아내는 방식이었으며, 연 1~2회, 회당 3~4일 정도 롤러방식의 장비 도색작업을 하였고, 도료 배합도 근로자가 직접 수행했다고 진술하였다. 근무형태는 2조2교대로, 1996년 입사 이후 질병 발생시점까지 약 26년간 교대근무를 하였다. 근무시간은 주간근무 08시~20시, 야간근무 20시~08시로 12시간씩 주야 격주 교대근무 형태였다. 휴식시간은 주간 10:00~10:10, 15:00~15:10, 야간 22:00~22:10, 03:00~03:15이며, 식사시간은 12:00~13:00(야간 24:00~01:00)이었다. 야간근무 시에도 주간근무와 동일하게 작업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근로자 진술에 따르면, 크레인 운전 시 장갑, 안전화, 안전모 이외 호흡용 보호구는 지급되지 않았고, 코로나19 이후 비말마스크가 지급되었다고 진술하였다.

3 해부학적 분류

- 기타 암

4 유해인자

- 기타 작업환경요인

5 의학적 소견

근로자는 2021년 11월 7일에 집에서 쉬던 중 우연히 좌측 목의 덩이를 발견하여, 당일 □병원에서 시행한 목 컴퓨터단층촬영에서 커진 림프절이 여러 개 발견되어, 2021년 11월 22일에 □병원에서 전립선 침 생검을 하였고,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adenocarcinoma(Gleason score: 5+5=10)가 확인되었다. 이후 2021년 12월 6일 ○대학병원에서 전립선 침 생검을 하였고,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adenocarcinoma (Gleason score: 4+5=9)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혈압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 외에 신청 상병과 관련된 질병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에 따르면 2019년 11월 14일에 □병원에서 전립선비대증으로 진료를 본 기록이 있는데, 근로자의 진술과 의무기록에 따르면, 건강검진에서 PSA가 증가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보았고, □병원에서 다시 확인한 PSA가 7.79 ng/mL로 확인되었으며, 근로자가 조직검사를 요청하였으나 당시 만 46세로 암 발생위험도가 낮다고 설명 들었으며 병원에서 전립선 조직검사를 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근로자는 22년간 반갑/일, 총 11갑년의 흡연력이 있고, 음주는 1~2회/월, 소주 1병/회 한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전립선암과 관련된 가족력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6 고찰 및 결론

근로자 ○○○은 1973년생으로 만 48세인 2021년 11월 22일에 □병원에서 전립선 침 생검을 하였고, 전이를 동반한 전립선암, adenocarcinoma (Gleason score: 5+5=10)를 진단받았다. 근로자는 1996년 1월 △사업장에 입사하여 질병 발생시점까지 약 26년간 가공부에서 천장크레인 운전직으로 근무하였다. 국제암연구소는 전립선암 발생의 직업적 요인으로 소방관, 야간교대근무, 고무 생산 산업, 비소 및 무기 비소 화합물, 카드뮴 및 카드뮴 화합물, X 선 등 전리방사선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근로자는 1996년부터 질병 발생 시점인 2021년까지 약 26년간 야간교대근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근로자의 상병인 전립선암은 업무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끝.